

장마와 비전과 대학

백운선

호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그
□년 장마는 유난히 우리를 우울하게 만든다. 물론 장마와 우울증은 친화력이 있다. 특별히 신바람 나는 일이 없는 한, 지루한 장마를 겪으면서 기분이 쾌적할 이유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마철의 우울이 꼭 짜증스럽고 무익한 것만은 아니다. 우울한 정서는 일면 여름 햇살의 강렬함과 이런 저런 자극들의 현란함으로 들떠있던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혀 줄 수 있다는 이점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또한 일상화된 가식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내면에 침잠할 수 있게 해 준다. 울적한 감상주의는 차분히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한다. 오락가락 하는 장마 비에 갇혀서 어느 순간엔가 망각 속에 묻혀버린 지난 일들과 스쳐간 사람들을 회상해

볼 수도 있다. 우중의 잿빛 풍경은 지나간 사랑과 미움, 그리고 흥분과 좌절의 흔적들을 반추하기에 제격이 아닌가. 우울함은 어찌 보면 자신의 진심에 좀더 가까워질 수 있는 감정인지 모른다. 슬픔이나 우울, 그리고 좌절감과 낙심 같은 어두운 정서가 오히려 자기 자신에 충실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같다. 이 점에서 구약성서 전도서의 다음과 같은 구절을 음미해 볼 만하다. “웃는 것 보다는 슬퍼하는 것이 좋다. 얼굴에 시름이 서리겠지만 마음은 바로 잡힌다.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이 초상집에 있고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이 잔칫집에 있다.” 그러기에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장마철의 짜증이 무익한 것만은 아닌 성싶다.

하지만 금년 이 장마가 주는 우울증은 무언가 다르다. 도무지 그런 감상적인

여유를 주지 않는다. 세상 돌아가는 일들이 이 장마철의 우울함, 움습함, 답답함, 그리고 불유쾌함과 동일화되기 때문인 듯하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모든 것들이 도무지 앞둔 세월에 대한 기대나 오는 시간에 대한 희망과는 무관하기만 하다. 오히려 전혀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과 답답함만 가져다준다. 금방 닥치는 21세기의 구상이 먼 나라의 얘기로만 들린다. 이것이 바로 비전을 상실한 우리 사회의 모습이다.

우리 사회가 이처럼 미래에 대한 기대와 구상을 잃어버린 데는 무엇보다도 정치권의 영향이 크다. 한국 사회는 고도의 정치중심 사회이기 때문이다. 어느 정도 다원 사회의 외양은 갖추었지만 각 부문을 지배하는 것은 여전히 정치 논리이며 사회 구조의 여러 변화에도 불구하고 정치에 대한 의존도는 감소하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따라서 정치의 질과 내용이 알게 모르게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마련이다. 정치권의 비리는 곧바로 사회의 타락으로 이어진다. 정치권의 책임 불감증은 바로 사회적 방종을 불러일으킨다. 사회의 무기력은 무능한 정치의 소산이다. 극에 달한 물량주의와 한탕주의는 고질화된 정치 부패가 조장해낸 우리 사회의 병리 현상이다.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되버렸나 싶을 정도로 구겨지고 불쌍사나운 정치권의 모습이 안타깝다. 한 마디로 퇴행의 길로 들어선 듯한 한국 정치의 여러 증후들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의 그 슬한 희생과 힘겨웠던 고난들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허탈할 따름이다.

작금의 정치적 사건들은 추적거리는 빛물과 끈적거리는 대기처럼 짜증스럽기만 하다. 무엇보다도 권력의 추함과 오만함이 우리를 우울하게 만든다. 한보 사건, 대통령 차남 파동, 그리고 대선자금 문제로 이어졌던 일련의 부패 스캔들은 권력의 타락한 치부를 드러내 주었다. 그것은 '50년대의 부정축재 이래 꼬리를 물어 온 권력과 부의 부패한 결합이었다. 국정조사다 청문회다 부산을 떨었지만 이번에도 뻔히 아는 것 이외에는 도대체 밝혀진 것이 없는, 아니 뻔히 아는 것조차도 속 시원히 확인할 수 없었던 요란한 통과 의례로 결말나고 말았다. 다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뉘우칠 줄 모르는 권력의 오만함이었다. 그리고 한 건 올리는 밀천썸으로 전락한 권력의 모습이었다. 그러다 보니 나서야 할 자리와 나서지 말아야 할 자리, 나서도 될 사람과 나서서는 안 될 사람의 구별이 없어졌다.

요즈음 정치 판은 몇 달 후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저자 거리처럼 북적대고 있다. 그러나 흥미로워야 할 이 북새통이 착잡하게만 느껴진다. 특히 집권당의 경선 과정은 마치 함부로 지은 가설 무대의 3류 연극 같다. 다가오는 선거를 생각하면 심란하기만 하다. 선거란, 그것이 아무리 어려운 시절에 치러진다 해도, 어느 정도의 기대와 흥분을 가져다주게 마련이다. 괜한 기대도 해보고 또

한 안 될 줄 뻔히 알면서도 판이 바꾸어 질 수 있지 않을까 흥분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르다.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식상해져 버린 것이다. 자신이 차기의 대통령감이라고 우기는 속칭 대권주자의 면면에서 미래의 비전은 찾아 보기 어렵고 순수한 권력욕만 돋보인다. 너나 없이 차기의 대통령의 권좌를 차지하겠다고 이리 치고 저리 받는 난장판 같은 정치권의 모습에서 내일의 무엇을 볼 수 있을 것인가. 정발협이 누구를 지지하고, 거기에 반발하고, 괴문서 음해 공작이 어떻고, 김심이 어떻고 심지어는 대의원의 매수를 위한 금품 살포설이 문제가 되는 지경에 이르러서야 무엇을 기대하고 마잘 것이 있겠는가. 대통령의 자리를 누구든 먼저 차지하기만 하면 자기 것이 되는 먹이감 정도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저마다 화려한 경력과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우리의 눈에 비치는 것은 전혀 신뢰가 가지 않는 껌밥에만 정신 팔린 모습이다. 말은 풍성한데 진실됨이 보이지 않는다. 이쯤 되면, 대통령이라는 직책은 왜 있으며 선거는 무엇 때문에 하는가를 묻고 싶은 본질적인 회의에 빠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더욱 한심한 것은 지금의 때가 어렵다고 해서 '그 때가 좋았다'는 회귀병이 다시 나뉠다는 점이다. '일제 때가 좋았다', '자유당 때가 좋았다'는 복고 타령이 이제 소위 '박정희 신드롬'으로도 저 나온 것이다.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후보자들끼리도 누가 더 박정희 전 대통령을 닮았는지 경쟁한다니,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다. 대구, 경북 지역의 합동연설회에서 앞다투어 '그 분을 닮겠다'고 목청을 높이는 여당 후보들의 모습은 차라리 측은해 보였다. 저들이 과연 저급한 수준이냐 역사 의식과 시대 감각을 지니고 있는지, 암담하기만 하다. 군부 독재의 유지를 위해 동원되었던 공포와 강압의 상처가 채 치유되지도 않았는데 바로 그 공포와 강압이 탁월한 지도력으로 미화되고 있는 것이다. 오늘이 보고 싶지 않은 모습들이 과연 어디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지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이 같은 생각 없는 복고주의가 판을 칠 수는 없다.

우리 사회가 이처럼 답답하고 막막한 우울의 늪에서 빠져 나오기 위해서는 진정한 공동체의 비전을 창출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 비전이 어디서 어떻게 구해질 수 있겠는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비전은 경제적 호황이나 최첨단 기술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초고속 정보망을 통해 탐색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당장의 발간 부수를 의식하고 어제 오늘의 시청률을 따지는 언론에 기대를 거는 것도 한계가 있다. 우리 사회의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손익계산에 초연할 수 있는 진정한 지성과 기술합리적인 논리로 부터 자유스러울 수 있는 분방한 창의력이 요구된다. 역사와 시대를 성찰할 수 있는 지적인 집착력이 필요한 것이다.

지금 대학이 바로 그 역할을 자임하고 나서야 할 때다. 이제 다시금 대학이 그 계몽주의적 기능을 되살려야 한다. 바로 이 점이 오늘의 대학이 고뇌해야 할 대목이다. 이를 위해서는 물론 대학이 변해야 하고 대학 교육이 혁신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변화와 혁신의 국면에서 몇 가지 우려되는 부분을 간과할 수 없다. 대학의 경쟁력을 키우자는 것이 자칫 과도한 상업주의를 부추기지 않을까. 그리고 대학간의 지나친 우열 경쟁이 알파한 센세이션을 대학에 끌어들이는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겠는가. 대학평가, 학과평가, 교수 업적평가, 그리고 강의평가 등 평가와 평점의 홍수 속에서 대학이 규격화되어 가지는 않겠는가. 계량적 지표로만 대학의 질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경영의 논리가 좋기

는 하지만, 그것이 대학의 정체성이나 학문의 순수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대학은 대학만의 독특한 호흡이 있어야 한다. 대학만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 점에서 인문학이 경시되는 최근 풍토는 개선되어야 한다. 바로 대학의 르네상스가 필요한 것이다. ■

백운선/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호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주요 저서로 『한국현대정치사』(공저), 『자유민주주의의 한국적 모형 연구』(공저), 『남북한 군비경쟁과 군축』(공저) 등이 있고, “재한국회내 소장파에 관한 연구”, “체제세력·반체제세력과 한국정치 분단의 재인식”, “자유당 형성의 정치사적 의미”, “통일국가의 정부 체계” 외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